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9. 5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6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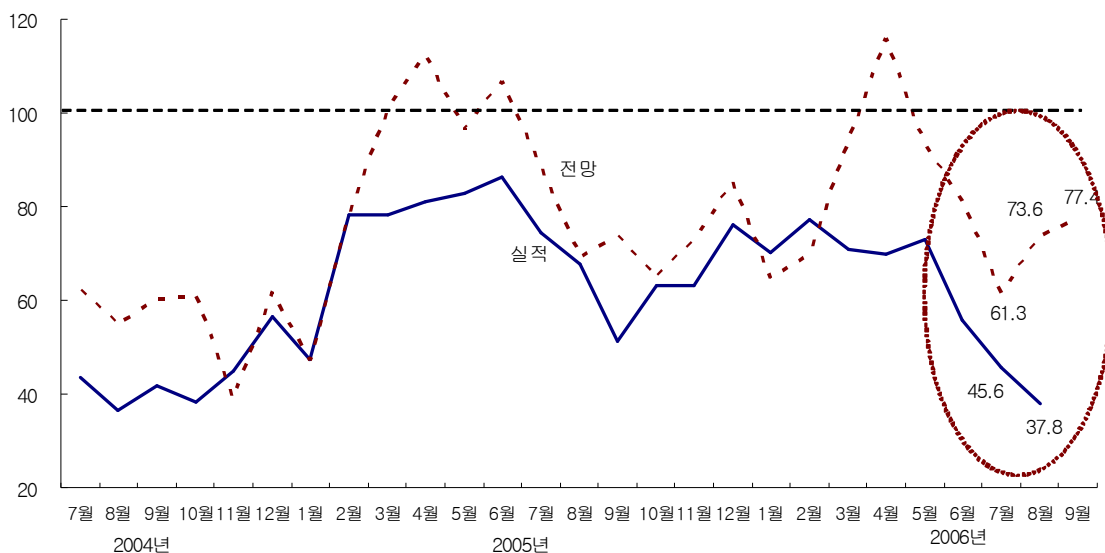
- 2006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전월에 비해 7.8p 하락한 37.8을 기록하여 3개월째 체감경기가 악화됨.
 - 지난달 조사된 8월 전망지수(73.6)와의 격차는 35.8p로 나타나 기대에 비해 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체감경기가 좋았던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악화가 두드러짐.
 -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12.8p 하락한 33.3을 기록하여 2개월째 큰 폭의 하락을 지속함.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48.0, 31.4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업체가 각각 33.4, 45.0에 불과함.
 - 9월 전망지수는 77.4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3.8p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해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음.
- 공사물량 지수는 52.6을 기록하여 4개월째 지수하락이 지속됨.
 -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50선에 머무르는 부진이 지속됨. 토목부문은 지난달에 비해 9.3p하락하여 3개월째 지수가 하락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보다 4.2p나 하락한 62.5를 기록함. 특히, 토목공사물량지수가 3개월째 감소하며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관련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은행권 금융조달 경색, 주택분양위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재비는 최근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9월 전망도 74.9로 나타나 유가상승에 의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임.

2006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체감경기, 3개월째 하락, 2004년 8월 이후 최저

- 2006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7.8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7.8p 하락하여 3개월째 체감경기가 악화가 지속되며 2개월째 50선에도 미치지 못함(5월(73.1)→6월(55.7)→7월(45.6)→8월(37.8)).

< 경기종합 BSI 추이 >



- 8월 전월 전망지수(지난달 전망)와 실적지수(이번달 조사)와의 격차는 35.8p나 발생하여 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상반기 공공발주가 21%나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수해복구물량 발주와 상반기 국가계약제도개편으로 지연된 물량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특히, 최근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과 건설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으며, 특히, 7월에는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온 건설기성액도 17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하며 모두 50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12.8p 하락한 33.3을 기록하여 2개월째 큰 폭으로 체감경기가 하락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 역시 각각 48.0, 31.4를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의 극심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33.4, 45.0을 기록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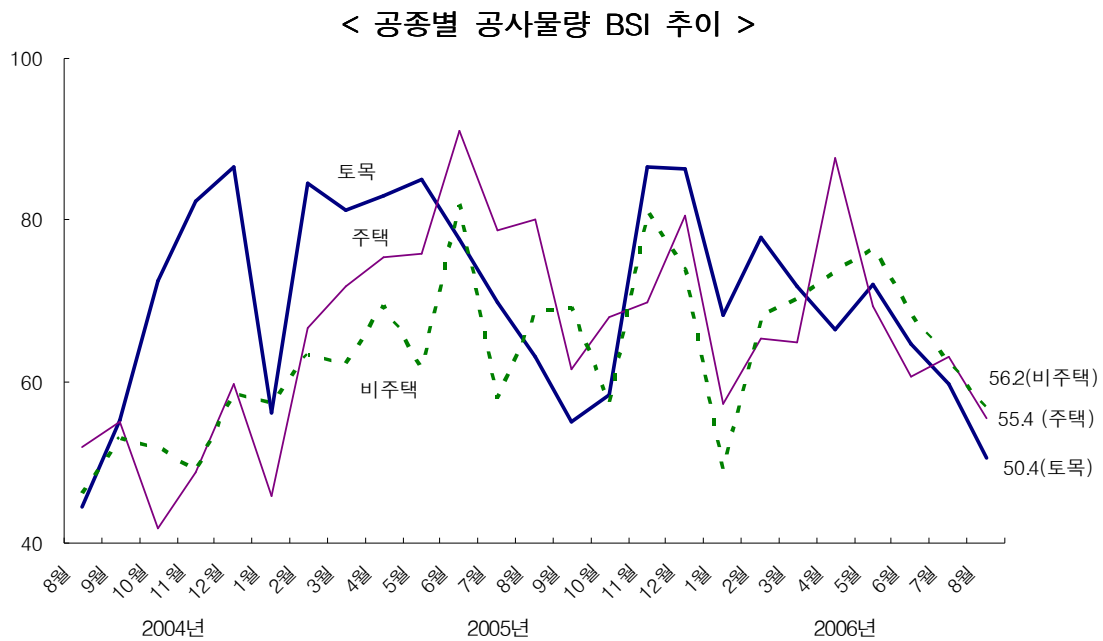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총 합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73.6)	77.4
규모 별	대형	41.7	61.5	72.7	100.0	80.0	100.0	88.9	85.7	100.0	83.3	46.2	33.3(92.3)	100.0
	중견	59.1	76.9	59.3	79.4	70.6	71.1	70.6	55.9	62.5	45.5	48.6	48.0(54.3)	68.0
	중소	53.7	48.9	56.9	44.4	58.0	57.4	50.0	67.6	53.7	35.0	41.7	31.4(73.5)	61.8
지역 별	서울	50.1	71.0	69.5	87.4	79.3	87.5	84.5	75.5	87.2	66.5	50.2	33.4(81.5)	87.5
	지방	55.5	60.3	53.2	38.8	57.3	62.3	49.8	64.6	52.3	39.9	38.5	45.0(71.3)	61.3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6년 9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7.4를 기록함.
 - 체감경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물량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9월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8p 상승함.
 -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을 의미함.

공사물량 4개월째 감소세 지속

- 8월 공사물량지수는 52.6을 기록함.
 - － 전월에 비해 11.4p 하락하여 4개월째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¹⁾.



- 공종별로는 토목을 포함한 모든 공종에서 50선에 머무는 부진을 보임.
 - － 토목물량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9.3p 하락한 50.4를 기록하여 3개월째 지수가 하락함.
 - － 주택물량지수는 55.4를 기록하여 지난달에 비해 7.6p하락함. 주택시장의 경우 공사물량 증감여부보다 최근 분양주택의 낮은 계약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비주택 부문(56.2) 역시 6.2p 하락하여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형업체의 물량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형업체는 전월에 비해 4.2p 하락한 62.5를 기록하여 3개월째 물량지수가 하락함. 비교적 물량이 풍부했던 토목공사물량 3개월째 감소하여 8월에는 44.4에 불과함. 주택공사물량 지수 역시 55.6을 기록하여 50선에 머무름
- 중견업체는 56.0을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37.1을 기록하여 물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54.3)와 지방업체(51.3)가 모두 부진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2.6	62.5	56.0	37.1	54.3	51.3
	전망	79.8	87.5	80.0	70.6	83.6	76.1
토목	실적	50.4	44.4	58.3	48.5	50.4	53.5
	전망	102.3	133.3	91.7	78.1	115.4	82.6
주택	실적	55.4	55.6	72.0	36.4	53.5	61.3
	전망	81.9	88.9	88.0	66.7	86.8	73.6
비주택	실적	56.2	77.8	45.8	42.9	62.9	43.1
	전망	80.5	100.0	70.8	68.6	90.6	61.2

주 : 실적은 2006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9월 예측지수임.

- 2006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9.8을 기록함.
-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2.8p 낮아진 79.8을 기록함.
- 그러나 토목물량 전망지수는 102.3을 기록하여 공공부문 공사물량 발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체 자금조달 위축 지속

- 최근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79.0, 75.6으로 모두 70선에 머무르고 있음.
 - 최근 건설업의 부진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 진데다 공사기성액도 감소하고 주택신규분양시장도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79.0	88.9	65.4	82.9	76.3	82.9
		전망	77.2	66.7	73.1	94.1	68.1	94.2
	자금조달	실적	75.6	66.7	88.5	71.4	73.0	80.2
		전망	85.8	87.5	84.6	85.3	84.0	91.5
인력	수급	실적	96.1	77.8	111.5	100.0	97.3	93.7
		전망	96.1	88.9	100.0	100.0	97.4	93.7
	인건비	실적	92.6	100.0	96.2	80.0	96.5	86.4
		전망	90.0	88.9	92.3	88.6	90.3	89.2
자재	수급	실적	94.8	100.0	92.3	91.4	99.3	86.9
		전망	96.1	88.9	100.0	100.0	97.2	93.7
	비용	실적	88.7	100.0	92.3	71.4	96.5	75.6
		전망	74.9	66.7	76.9	82.4	71.5	80.3

주 : 실적은 2006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9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과 비용지수 모두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2.6, 88.7로 조사되어 전월에 비해 각각 11.0p, 16.9p 상승함.

- 그러나,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해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9월에도 인력 및 자재 수급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재비 전망지수는 74.9에 불과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격불안정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